

태양의 빛 아래 우리 조국의 앞길 창창하다

운행성을 계감시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성 70돐 경축 행사들은 깊은 어운을 날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인 충공세, 경제 전설에 걸쳐 고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뜻깊은 경축 행사를 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길동노도는 주체조선의 불제의 기상과 위용을 만방에 펼친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

위대한 태양의 빛 아래 더욱 부강 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창창한 데일을 그려보며 천안군민이 가슴깊이 절감한것은 무엇인가.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어떤 모든 행복의 상정이라는 철학이다.

위대한 평도를 깨끗이 정리해나온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창작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며 영원한 국가주석 이신 위대한 수령 정통통지!

«수령이 위대한 나라도 위대하고 당도 위대하며 인민도 위대합니다.»

국력이 막강하고 인간의 창민들이 끌어나는 청진한 강국에서 살을 짓는 것은 인류의 오랜 지향이고 넘천이다.

그러나 이 지향과 열망은 걸고 바란다고 하여 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와 현실은 불제의 강국건설 위업은 오직 길출발 위인, 인민의 수령을 높이 모시고 두정하는 나라와 민족만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언제였던가, 유구한 역사사를 자랑하는 이 땅에 창작자, 인민이 주인인 진정한 국가가 수립되게 된것은,

그날은 주제 37(1948)년 9월 9일이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암시하고 항일의 혁전비를 헤치시며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민의 참된 행복과 푸짐한 미래가 담보되는 인민의 나라를 험난한 일정에 조선민족화국을 일깨워주고 있다.

봉남산마루에서 디지신 맹세를 지켜 내 나라, 내 조국을 영원한 어버이수령님의 조국, 강대한 나라로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

오늘도 우리 인민은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 해의 혁명 활동일지를 번지며 눈물을 죄신다.

주제 100(2011)년 6월 60년

때의 강주위가 떨어지면서 1월부터 삼복절에 이어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 중순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많은 인민군부대들과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면서 경적역인 혁지지도

간악 오성산의 가파로운 칼바위길도 있었으며 외진 섬초소를 찾아 헤치신 봉황사나운 바다길도 있었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현황이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어떤 빠값을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키고자 한다.

나라를 지켜내기만 하면 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망국노가 되겠는가, 자주적인민이 되겠는가,

이런 의지, 이런 사명감을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에서 결단과 단행하신 선군길은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유산인 우리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는 역사의 정점이었다.

원쑤들의 악랄한 학동은 상상을 초월했어도 내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막고 뿐이었다.

위대한 평도에 즐거운 풍물은 오늘도 6월에 즐기고자 한다.

고전으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전으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전비를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는 그대로 이어 이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자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우리 조국을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뜨거운 수축에 어려운다. 장군님의 영생의 숨결을 블으려는 말이 참으로 좋다, 이 말만 외워도 눈물이 난다고 또 걸으심이 부강조국건설의 만년도 대를 미련해놓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실 철의 목표로 가슴을 끌어내리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지지도 강행군길을 걸고 또 걸으심이 부강조국건설의 만년도 대를 미련해놓으셨다.

그 이의 미움 속에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존엄으로 빛나는 사랑하는 조국이 소중히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우리 조국을 가장 강위력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간직하신 힘으로 혁전비를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신념이고 의지였다.

봉남산마루에서 디지신 맹세를 지켜 내 나라, 내 조국을 영원한 어버이수령님의 조국, 강대한 나라로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

오늘도 우리 인민은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 해의 혁명 활동일지를 번지며 눈물을 죄신다.

주제 100(2011)년 6월 60년

때의 강주위가 떨어지면서 1월부터 삼복절에 이어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 중순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많은 인민군부대들과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면서 경적역인 혁지지도

의 길을 이어가셨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지는 것

이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무처는 그리 울이다.

듯тки는 공화국 창건 70돐을 성대히 맞이한 이 시작 나의 가슴은 이 때에 어버이수령님의 주민들, 나라를 일떠세우고 인민을 위해 헌생생을 더 미지근하게 헌신해온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드립게 말아오르고 있다.

이것은 비단 나 하나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해서는 이 세상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며 이민 위선의 혁사를 수놓아 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과 깊은 울림이 울려퍼지는 «세상에 부릴일없어라»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더욱 생각이 깊어지는 우리 인민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정말 우리 수령님은 이민 위선과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온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입니다.»

지금도 잊을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가 떠온다.

수십년 전 어느 해 봄 날이

우리는 아침 일찍 혁지지도의 길에 오르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겸손한 점심식사를 싸드리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용궁구를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어찌하라,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사소한 특전, 특도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밤이 끝 길어서야 속으로 돌아

수십년 전에 그는

어디에서 드셔야 할 점심식사가 그냥 차인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느 한 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농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어

방랑도록 허락해준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블록

웃구치는 눈물을 걸蛆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일군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수령님께서는

그리고는 그날

마음은 정말 쓰리고 아팠다.

주제 6(1972)년 6월

중순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신포포

고개를 통과장을 무었다는 보고

를 받으시고 현지에 도착하기

마련에 평화 30°C의 천연실암

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었다.

그때는 일군들과 현장일군들이

극복 만루에 놓였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걸구경이나 하고

풀이 카비에야 무엇때문에 배사

나는 저도 모르게 눈앞이 푸르게

흐려졌다.

자신께서는 겹조한 식사를

드시면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사

철 신선한 생선을 먹이시려고 그

미도 마을을 헤쳤다는 어버이수령님.

그때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절박한 생활의 밀비다락에 과연 무슨

것이 진하게 할려는 것인가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임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었다.

흔히 무모들은 자신의 기쁨에

이시고 봄날의 첫비를 날렵지

맞으신 분도 우리 수령님이 시

었다.

어버이수령님을 헤쳤던 이에

서 보시고 일어난 뜻을 그 나

님을 추억할 때면 우리 수령님

이시어보면 한평생 인민들에

제시면서 조국의 무장번영과 인

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을 헌신해온 원수님의 헌신을

명령으로서 제기되었을 때에는

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실비를

갖추어놓았고 선전만 하여

서는 아무리 소용이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실지로 이 혁명에서 먹을

수익이 없어 아파하고 감격해

있었다.

여기서는 일상에서

제기되었던 뜻을 그 나

님을 추억할 때면 우리 수령님

이시어보면 한평생 인민들에

제시하면서 조국의 무장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을 헌신해온 원수님의 헌신을

명령으로서 제기되었을 때에는

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실비를

갖추어놓았고 선전만 하여

서는 아무리 소용이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실지로 이 혁명에서 먹을

수익이 없어 아파하고 감격해

있었다.

여기서는 일상에서

제기되었던 뜻을 그 나

님을 추억할 때면 우리 수령님

이시어보면 한평생 인민들에

제시하면서 조국의 무장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을 헌신해온 원수님의 헌신을

명령으로서 제기되었을 때에는

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실비를

갖추어놓았고 선전만 하여

서는 아무리 소용이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실지로 이 혁명에서 먹을

수익이 없어 아파하고 감격해

있었다.

여기서는 일상에서

제기되었던 뜻을 그 나

님을 추억할 때면 우리 수령님

이시어보면 한평생 인민들에

제시하면서 조국의 무장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모두가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순결한 양심과 열정으로 당의 뜻을 받아가는 참된녀성일군

신천려관지배인 마봉옥동무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였다.

『누가 발견할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
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수수한 작업복차림의 체소한
몸, 옷에 대해서 감상감실한
얼굴, 마디가 불거진 캐지 않
은 송...』

어제날의녀성돌격대지휘관

지금으로부터 30년전 봄
느느 신천군당위원회 책임일군
의 방을 나서는 한 젊은 네이인이
있었다. 청년돌격대체부차임에
둔에 전 배치장을 가슴에 꾸
았고 생각같이 걸음을 옮기는
그가 바로 마봉옥동무였다.
그의 부친은 신천문화판사업
을 책임질때 대한사업을 주면서
돌격대시절처럼 본래있게 일
해보라고 하던 군당책임일군의
말이 그냥 뱉었다. 돌격대시
절하고 의워보스마니 제대되어
돌격대를 떠나면 그날 일정으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내
달리기장을 바란다고 하면 동무들
의 기대어민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면서 저도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았다.

(당조직에 다른 일을 달게되었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 돌
격대소대장이었던 내가 문례판
에서 일하던것은 동무들이 알
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며 문
례판에 들어서면 그는 현판의
한 글판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
었다.

인민의 충분, 그 글판에는 얼
마나 코나쁜 믿음과 기대가 어
려웠던것인가. 마봉옥동무의 눈
앞으로 신분과 방송을 통해 알
게 된 수많은 인민의 참모임과 복무
자들에게 대안 이야기가 다시금
들리기까지였다.

누가 보건밀진, 알아주면 말진
한행을 끝까지 당시에는 일
소를 지켜가며 그들이 안고 산
고정한 지팡이 바로 그 글판에
어려웠던것이었다.

비록 일터는 코지 않고 하는
일은 평범해도 자기가 지켜선
일터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중요한 초소라는 자각이 그의

이것이 신천려관지배인 마봉
옥동무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에게서 받은 첫인상이었다.

지난 30년간 신천평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의 헌신과 정력을 다 바쳐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수수한 작업복차림의 체소한
몸, 옷에 대해서 감상감실한
얼굴, 마디가 불거진 캐지 않
은 송...』

라 허물고 다시 깃기로 결심하
고 종업원들을 물리쳤다.

마봉옥동무와 종업원들은 낮
에는 허리치는 강풀속에 뛰어들
어 한풀한풀 땅목이 어여운 미
봉옥동무, 그 나날 그가 인민을
위해 비치고비친 물결은 열정과
헌신의 팔방울을 오늘날 당시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참피고
고정한 인민의 복무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얼마 안되는 너정으로
으로 새 전문을 일떠세우는 일
장을 찾을 때까지 완창하게 밀
고나가는 어제날 놀라운 지휘관
부리는 이런저런 리유로 출근하지
않는 종업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일이 힘든것은 얼마나 참고
견디어낼수 있었다. 하지만 하
루풀리며 일어설 보관봉이 일어세
워고살이하는 그 진정성을 종업원
들이 살피자고 생각하니 눈물
이 나오도록 애쓰기만 했다.

며칠 후 빙 비다실이 한 작업
장에 흘러 앉아 수심에 잠겨있
던 그는 케이션을 목소리에 대
고 고개를 끄렸다.

『돌격대시절의 배기는 어Ken
한것 같구만. 그게 기본이요.』
잠시후 마봉옥동무와 미주암
군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
였다.

『봉우리를 찾을 때마다 빙
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강풀을
찾아온 것은 소대에 경기에서
이긴거라고 했던가. 힘을 내오.
봉우야 2등이란걸 모르고 둘러
생산경기 때 막강 폭죽이야기
같은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와서 허리치는
것에 분리판을 따로 내렸겠어
요. 본이 많아서였어요, 진실자
재가 남아돌아가서였어요. 단
한명의 손님이라도 불편을 느끼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문례
판을 내온것이 아니겠어요. 우
리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가는 당의 풋을 심장에 암고 살
자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힘으로 인민들
을 끌어들이며 빙을 끌어들여 허리
를 치는 힘을 끌어들여 허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봉옥
동무는 눈물이 창을 끓었다.
『고맙습니다. 힘을 차려주세요...』
이 말은 그가 인민의 복무자
로서 첫걸음을 떠는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였다.

돌격대경력을 가진 신임책임
자는 활동의

